

유럽연합의 대학교육 현대화와 개혁 정책

김 숙 원, 저널리스트

2006년 6월

글로벌화로 세계 시장은 재구성되고 있다. 특히 유럽은 저조한 경제성장, 고령화, 높은 실업률, 인도와 중국 등 신흥공업국가의 부상 등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도전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연합은 2000년부터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혁 정책을 실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아젠다를 마련하였다. 특히 첨단 기술 개발과 탁월한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유럽의 경제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사회 고용 정책과 대학교육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취업률을 높이고자 한다.

대학교육의 개혁은 유럽의 미래 사회 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유럽연합은 우선 유럽 대학의 교육 수준을 본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엑셀런스 센터를 건설하여 첨단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 학생과 학자들의 해외 유학을 장려하고 나라마다 다른 대학교육 체제와 행정 도구를 통일하여 해외 유학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그 밖에도 국제적으로 유럽 대학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대륙의 대학들과의 협력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00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대학교육 현대화와 개혁 정책의 전략과 목적,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 사무소

편집인: 페터 가이,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 (가나다 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 빌딩 1101호 ☎ 110-742

Tel: (02) 745-2648/9, Fax: (02) 745-6684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http://www.fes.or.kr

1. 머리말

2000년대 세계 시장은 재구성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글로벌화로 나타난 경제성장의 둔화, 높은 실업률, 인종 간 문화적 갈등, 아시아 지역의 세계 시장 점유율 증가 등으로 인해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사회와 경제에 걸친 구조 개편을 시도하고 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였다. 특히 연구기관을 육성하여 개발 산업을 활성화하고, 대학교육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인재와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유럽 내 대학 간 협력과 산학 협력은 물론 대외적 교류도 강화하고 있다. 저자는 이 글을 통해 변동하는 세계 흐름에 대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유럽연합의 대학교육 현대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대학교육의 현대화

대학교육의 현대화 작업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이 리스본 전략과 볼로냐 프로세스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정치적 차원에서 대학교육 발전의 기본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1) 리스본 전략

유럽 정상들은 2000년 리스본 정상회담에서 지식에 바탕을 둔 새로운 경제 창출의 절박성을 확인했다. 그들은 2010년까지 유럽연합을 계층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사회이면서도,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경제 공간으로 만들 것을 결의하고, 구조 개혁을 착수하였다. 그러나 2005년 중간 평가를 통해 그들은 애초 세계 최강이 되겠다는 야심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했다. 이러한 좌

절에도 유럽연합은 개혁 추진의 절심함을 재확인하였고,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조절 단계로 들어섰다.

2) 볼로냐 선언과 추진 과정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수의 영국 대학을 제외한 유럽 어느 대학도 세계 20위 안에 들지 못했으며, 겨우 몇 대학만이 50위 안에 들었다. 연구 사업을 비교해 보면, 유럽연합은 1000 명의 직장인 중 5.5명이 연구직 종사자로 미국(9.0)과 일본(9.7)의 수준에 훨씬 뒤지고, 또 자연과학과 과학기술에서 아시아 대학들의 급속한 성장도 유럽을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유럽 대학은 외국 학생과 학자들에게 점차 인기를 잃고 있다. 외국인들이 유럽 대학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지만, 남아메리카와 아시아 학생들 대부분은 유럽보다 미국을 선호하며, 미국에 유학하는 유럽 학생 수도 유럽으로 유학 오는 미국 학생 수의 두 배에 이른다.

유럽 대학의 교육 수준을 본질적으로 향상시킬 목적으로 1999년 유럽의 29개 국가 교육부 장관들이 볼로냐에 모여 대학교육 개혁을 위한 전략과 목표를 선언하였으며, 2년마다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를 열어 대학교육의 현대화를 감독, 추진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동유럽 국가들과 과거 소비에트 공화국에 속했던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45개국이 볼로냐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다.

3. 교육 개혁 추진에 중요한 항목들

유럽연합은 첨단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사회 고용 정책과 교육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건전한 노동시장을 창출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교육의 현대화다. 대학교육 개혁의 주요 항목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대학교육의 유럽적 공간(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EHEA) 확립

유럽 대학들은 오랜 전통을 자부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관료적인 체계를 유지해 왔다. 또 해외 유학이나 해외 취업을 원할 경우, 나라마다 서로 다른 대학 체제로, 학위, 경력, 학점 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유럽 내 교류도 원활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학 발전과 관련 절실한 문제는 글로벌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학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대학 행정과 체계를 단순화하여 유럽 대학을 학석·박사 체제로 통일하고, 학점과 학위 취득, 경력 인정을 합리화하여 유럽 내에서 학생과 학자의 교류를 촉진하며, 유럽 차원의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EHEA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이는 대학 행정의 전반적인 수정을 의미한다.

2) 교육수준 보장제도(Quality Assurance System, QA)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은 모든 유럽 대학에 적용할 수 있는 엄격하고 투명한 공동 QA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는 객관적이고 치밀한 평가를 통해 발견한 문제를 개선, 발전시키고자 함이다. 한편, 각 대학이 대학 자체 QA를 설치하여 문제를 스스로 개선하고, EUA(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와 ENQA(European Network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와 같은 전문기관이 유럽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QA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학 행정체제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은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받으며, 유럽집행위원회가 이 모든 과정을 자문, 감독한다.

3) 학점제 통일(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ECTS)

나라마다 다른 성적 평가제들을 유럽식 학점제인 ECTS로 통일하여, 유학 기간, 학점, 학위 인정을 쉽게 하고 유학을 통한 손실을 없앤다. 세미나, 출석, 리포트, 시험, 강독, 개인 학습 등 대학에서 취득한 성과물을 점수로 환산해 학생들의 점수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한다. 또 ECTS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제도이다. ECTS는 점수 축적 시스템으로 시민들이 직업 경력을 위해 졸업 후에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점수를 모을 수 있다. 유럽연합은 ECTS를 통해 유럽 내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더 강화하여 시민들이 노동시장에 신속하고 탄력성 있게 적응하도록 돕는다.

4) 연구 기관과 EHEA의 연계

EHEA는 박사를 늘려 대학교육의 상향적 발전을 추구하며, 박사 과정과 박사 이수 후 국가 간 공동 연구를 지원한다. 또 박사 학위자들은 EHEA의 정예 그룹으로서 학과를 초월한 혁신적인 연구에 참여하여 세계 경제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5) EHEA의 인지도 향상

세계로 유럽 대학을 개방하여 다른 지역과 협력을 강화한다. 다자 간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하는 협력 관계를 통해 각 대학의 특성을 조합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세계 각처의 인재들이 유럽의 다양한 문화 자본과 유럽 대학의 특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EHEA의 건설은 유럽의 다양한 전통, 문화유산, 다른 언어와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게 각 나라의 책임 아래 추진된다. 또 교육의 현대화 작업이 모든 회원국에서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EUA, EURASHE(Europ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s in Higher Education), ENQA 같은 대학교육 전문기관들이 유럽연합 각료이사회에 참여하

여 자문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QA의 공동 기준과 공동 처리 방식을 개발하고, 대학과 회원국 행정부에도 자문을 제공한다.

4. 유럽 내 대학 협력

에라스무스는 1987년에 시작한 유럽 내 대학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3기(2000-2006년)가 진행 중인 이 프로그램에는 31개 국가의 2000여 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에라스무스를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유럽연합 역내 유학 지원

에라스무스의 주요 사업은 학생, 교수, 연구원의 해외 유학 지원이다. 제3기 유학 지원 예산은 에라스무스의 총 예산 9억5천 유로의 79%인 약 7억5천 유로이다. 체류 기간은 대학생의 경우 3~12개월이며, 교수와 연구원은 1주일에서 6개월로 제한한다. 특히 대학생 유학은 전문대학, 일반대학의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박사 과정도 포함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의 참여도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유학 지원액의 규모를 늘렸음에도 지원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한 명당 배분되는 지원액은 점차 줄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교수와 연구원에게 1997/98년 평균 842 유로, 1998/99년 763유로, 2003/04년 575유로를, 학생에게 매월 150 유로를 지원했다. 또 에라스무스 학생은 자국 대학에 학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해당 대학에 대한 학비 부담 없이 무료 어학 과정과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2) 조인트 스터디

유럽연합의 독창적 프로그램인 조인트 스터디는 세계 최고를 겨냥한 석사 과정이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최소 세 나라의 3개 대학으로 구성되며, 1~2년 과정이다. 원칙적으로 학과의 구분을 두지 않으나, 자연 과학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노동시장과 긴밀히 연결되는 분야, 글로벌화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 다양한 문화 교류와 이해 관련 테마들이 주로 채택되었다. 공부를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은 해당 대학에서 이중 또는 삼중의 학위를 받는다. 유럽연합은 조인트 스터디를 학사와 박사 과정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조인트 스터디를 위한 커리큘럼의 공동 개발과 대학 간 조직 분담, 입학, 학점 평가, 학습 목표, 상호 학점 인정에 대한 공동 원칙과 기준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3) 유럽 모듈의 공동 개발

유럽집행위원회는 학생들이 강의를 통해 유럽적 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는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한다. 각 나라의 2~3개 대학이 협력하는 이 프로젝트는 유럽인들의 공감대와 공동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럽의 역사, 사회, 문화, 정치, 경제구조를 소재로 한다. 그 예로 유럽연합의 발전사, 유럽연합의 구조 또는 일정한 테마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의 비교가 있다.

4) 전략 개발

대학과 연구 기관의 협력으로 교육의 미래를 위한 전략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대학 경영, QA 개발, 교수법 개선, 특수 대학 과정이나 강의 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의 교육제도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대학의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표 1.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으로 유학한 학생과 교수의 수

년도	학생수	체류 기간(개월)	교수(명)	체류 기간(일)
1987	3,244	-		
1988	9,914	-		
1989	19,456	-		
1990	27,906	-		
1991	36,314	-		
1992	51,694	-		
1993	62,362	-		
1994	73,407	6.4		
1995	84,642	6.4		
1996	79,874	6.3		
1997	85,999	6.4	7,797	-
1998	97,601	6.7	10,605	-
1999	107,666	6.7	12,465	-
2000	111,092	6.7	14,356	6.9
2001	115,432	6.6	15,872	6.8
2002	123,957	6.6	16,934	6.7
2003	135,586	6.6	18,496	6.4

출처: 유럽집행위원회 통계 자료로 저자가 제작.

http://europa.eu.int/comm/education/programmes/socrates/erasmus/stat_en.html

5. 해외 협력

유럽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세계 여러 나라와 협력해 왔다. 그러나 단순한 교환 학생 형태였다. 그동안 유럽은 에라스무스를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았고 교육 협력을 위한 행정력도 향상시켰으며, 상당수 대학들은 유학생을 위한 전문 담당 부서와 기숙사, 어학 수업 시설을 갖추었다. 또 불로냐 프로세스에 따라 해외

협력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두 대학 차원의 단순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 다양한 문화적, 학문적 교류를 위한 다자 간 교환학생의 형태로 발전했으며, 커리큘럼, QA와 조인트 프로그램 개발 등 프로젝트의 종류도 다양해 졌다. 유럽 대학의 해외 협력 전략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선진국과 협력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와의 협력을 들 수 있다. 미국과는 풀 브라이트 장학제도와 유럽연합의 조인트스터디 프로그램이 병행해서 협력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호주, 일본과는 현재 실험 단계에 있다. 이러한 협력의 목표는 먼저 학생들에게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나아가 고도로 발전된 인적 자원과 능력,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데 있다. 유럽 세 나라의 3개 대학들과 파트너 국가의 다양한 지역에 있는 2~3개 대학이 협력한다. 유럽 학생은 파트너 국가의 2~3개 대학으로, 파트너 국가의 학생들은 유럽의 2~3개 대학으로 파견된다. 성공적으로 공부를 마친 학생들은 이중 또는 삼중으로 학위를 받는다. 또 학생들은 자국 대학에 학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파트너 대학에 대한 학비 부담이 없다.

2) 후진국 지원

유럽연합은 1990년 이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는 학문적 훈련 프로그램(심포지엄, 세미나 등)인 알파(ALFA)를, 러시아, 동유럽 국가, 중앙아시아, 지중해 남부 지역 국가들과는 템퍼스(TEMPUS)를, 2002년부터 아시아 링크(AsiaLink)를 만들어 아시아 지역과 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 2003년부터 석·박사 장학 프로그램인 알반(AlBan)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3세계 국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즉 자연재해, 가난 극복, 사회 계층과 성 차별, 인권 침해, 정치적 갈등 등을 학문적 차원에서 지원하여 그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우는 한편, 세계 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그들의 정치, 경제 파트너로서 한몫하고자 한다. 인적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학생과 학자 파견을 중점으로 선진국과 협력하는 것에 비해 후진국과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파트너 대학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당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3) 유럽학 마스터 스터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전 세계에 유럽 통합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유럽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지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유럽학 마스터 스터디

유럽집행위원회는 석·박사의 미래 전문가들을 위해 유럽통합 과정을 강의하는 5개 주요 대학을 지원한다. College of Europe(벨기에 브뤼셀, 폴란드 바르샤바),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이탈리아 플로렌스), Europ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Europäische Rechtsakademie Trier(독일 트리어), Centre international de Formation européenne(프랑스 니스)가 여기에 속한다.

② 자료 센터와 유럽학 강의

유럽연합은 모든 대학이 유럽법과 유럽 통합에 관련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적, 강좌, 유럽학 교수, 대학, 전문 기관들을 서로 연계시킨다. 또 유럽학 강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현재 전 세계 55개 국가의 약 750개 대학에서 유럽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가 유럽집행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③ 유럽학회 지원

유럽집행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럽학 교수와 연구자로 구성된 유럽학회(European Community Studies Associations) 설립을 지원한다. 또 유럽학 교수와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구 업적들을 서로 논의하도록 지원하며, 인터넷 사이트와 각국의 언어로 출판되는 유럽학회 소식지 출판을 후원

한다. 현재 전 세계 52개 유럽학회에 7,000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한국EU학회도 여기에 등록되어 있다(www.keusa.or.kr).

4) 조인트 스터디

2003년 12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는 조인트 스터디에 외국인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제1기(2004-2008년) 투자 예산으로 2억3천 유로를 책정하였다. 이 장학 프로그램은 에라스무스 문두스라 불리며, 2~3개 유럽 대학이 협력하여 세계 각처의 인재들에게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럽 대학의 탁월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외국 유학생들의 다양한 학문적 시각을 통해 EHEA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또 유럽 대학들은 조인트 스터디를 실행하여 얻은 경험을 일반 대학 교육에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조인트 스터디에 참여하는 교수와 학생에게 체류, 이동, 학습, 연구 활동 등에 관련한 모든 비용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3개 유럽 대학 가운데 적어도 2개 대학에 일정 기간 체류해야 하며, 총학점의 최소 30%를 각 대학에서 취득해야 한다.

2005년 유럽집행위원회는 에라스무스 문두스에 특수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1억 유로를 더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 카테고리에는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적용된다. 즉 아시아 20개국의 장학생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3년간 5천7백만 유로의 예산을 책정하고, 약 16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2005년부터 3년간 9백만 유로를 별도로 투자하여 중국과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중국 학생 200명이 추가 참여한다.

표 2에는 유럽집행위원회가 머릿수대로 지불한 장학금을 집계하였다. 2004년과 2005년 장학 혜택을 받은 한국 학생과 학자가 동일 인물일 경우, 총 4명의 장학생이 선발됨으로써 조인트 스터디에 대한 한국의 참여도는 결코 높지 않다.

유럽연합과 한국의 협력 관계는 아직 미미하다. 그러나 2006년 1월 유럽연합은 2007-2013년까지 대외 정책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교육, 과학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것을

표 2. 에라스무스 문두스에 참가한 외국 학생과 학자의 수

일반 카테고리						특수 카테고리 (한국과 일본 제외)			
						동남아시아 국가			중국
2004 (년)	학생	140 (명)	52 (개국)	한국학생	3 (명)	-	-		
	학자	28	16	한국학자	1	-	-		
2005 (년)	학생	808	90	한국학생	3	353 (명)	14 (개국)	21 (명)	
	학자	133	35	한국학자	1	-	-	-	

출처: 유럽집행위원회 통계자료로 저자가 제작.

http://europa.eu.int/comm/education/programmes/mundus/index_en.html

표명하였다. 따라서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더 긴밀하게 발전할 전망이다.

6. 맺음말

글로벌화로 인해, 우리사회는 지식을 토대로 한 고도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직면해 있다.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적 자원과 첨단 과학기술 개발이 사회 발전에 더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되었다. 현대는 어느 때 보다도 교육이 사회 발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다. 글로벌화로 지역 간 협력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유럽연합, 아펙, 아셈의 탄생이 그 예다. 지역 간 교육 협력 정책도 역사상 지금만큼 활발했던 적은 없다.

유럽연합은 2000년 리스본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로의

구조 개혁을 선언하였고,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 등 교육 전반을 재구성하기로 하였다. 특히 볼로냐 선언을 통해 유럽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한 4가지 기본 전략을 세웠다. 그 전략으로는, 첫째, 유럽 대학교육의 질을 본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둘째, 사회고용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평생 교육을 통해 인적 자원을 꾸준히 발전시킨다. 넷째, 세계 대학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럽집행위원회 대표, 대학교육 전문기관들, 각 회원국 교육부 장관들은 2년 마다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를 개최하고, 볼로냐 선언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만의 고유한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세계 최단의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유럽이 되고자 한다. 유럽인들의 이러한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기에, 그들은 힘겹고 어렵지만 미래를 향한 근본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FES-Information-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or.kr>)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06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Cooperation Office